

# 민주 흥행몰이 카드...시·도지사 경선 '시계제로'



정후식  
논설위원  
결선투표 누가 웃을까

### 1차 경선서 최고 득표자 과반 확보 못하면 1·2위 재투표 광주시장 단일화로 '빅뱅'...권리당원 표심 결집 여부 관건 3자 호각지세 전남지사 1차 경선따라 합종연횡 달라질 듯

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결선투표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며칠 전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의 경우 1차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1·2위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표를 진행해 흥행 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도입한 결선투표는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원조 격인 프랑스는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선출직 경험이 전무했던 중도 신당의 30대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을 압도적 표차로 꺾고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결선투표를 통해서였다. 1981년에는 프랑수아 미테랑이 1차에서 25.85%를 얻어 지스카르 데스탱(26.32%)에 이어 2위를 했지만 결선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에게 과반수의 대표

성을 부여해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주고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 선출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 단체장 경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도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는데 현재 판세 등을 고려하면 1차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는 특히 지지 기반이 탄탄한 선두 주자보다 2~3위 후보 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후보들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지율에서 뒤처진 주자들에게는 후보들 간 연대로 판을 뒤집을 기회가 주어질 셈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옛것제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공동 시민 정부 구성을 매개로 단일화를 추진해 온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가 강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면서 '빅뱅'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그간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이용섭 예비후보와 그에 맞선 반이용섭 전 전남도지사의 표심 결집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윤 시장이 단일화 추진 후보들과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강기정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오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민주당은 이병훈·양항자 예비후보를 포함한 4명을 대상으로 1차 호각지세 후보와 경선 일정 등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장만재 전 전남도교육감의 3자 호각지세로 펼쳐지고 있는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오는 13~15일께로 예정된 1차 경선 결과에 따라 합종연횡 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어쨌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경선이 곧 본선'이었던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경선은 한층 뜨거워지게 됐다. 후보들이 이해가 엇갈리고 애가 탕졌지만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선 박진감 넘치는 경선이 될 전망이다.

## 6·13 선거 현상

###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 양항자 글로벌·통일분야 공약 발표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글로벌,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중·대북관계를 중시하고, 세계도시기후 정상화를 광주에서 개최한다"면서 "글로벌, 통일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해제 언급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도지매입 후 중단되었던 '주 광주 총영사관' 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영사 업무 수행이 확대되면 광주지역 중국인 유입과 관광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용섭 전남대서 '청년일자리' 특강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전남대학교에서 '청년일자리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후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명확한 꿈이 있어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곧 성공으로 이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 취직만을 고집하지 말고 젊은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창업',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종을 개척하는 '창직'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 장만재 '전남-100원의 행복' 사업 추진



"전남에서 100원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의식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장만재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5일 '100원의 약속 쿠폰', '100원의 행복밥상' 등 '전남-100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 노인회관을 방문, '100원의 행복'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100원의 약속 쿠폰'은 전남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수 물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리치료에 필요한 자부담 2400원을 월 3회 '100원 효 쿠폰'으로 지급해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에게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100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 노인회관을 방문, '100원의 행복'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 광주시교육감 후보

#### 최영태 "신설학교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최영태(64·전남대 교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생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초등 돌봄 공백" 문제는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를 강요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광주 교육을 이끌게 된다면 신설 학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학교는 교실 리모델링을 거쳐 돌봄교실을 확충해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자격증이나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돌봄교실 1곳당 1명씩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김현호기자 khk@kwangju.co.kr

## 미래에셋 '특혜 논란' 연륙교 여수 경도~신월동 노선 가닥

### 당초보다 길이 늘어나고 사업비 968억으로 늘어

### 국비 50%, 전남·여수 30%, 미래에셋 20% 부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여수 경도의 연륙교가 경도~신월동 노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예상된 경도~돌산 노선보다 길이가 늘어나 건설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로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연륙교 건설 구간 결정을 위해 경도~국동항, 경도~신월동 등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중 경도~신월동 구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고시된 여수시도시계획에 포함된

구간으로 관광 효과, 재난대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여수시 입장을 반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신월동~경도~돌산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경도~신월동 구간으로 확정되면 국동항을 통하는 구간과 비교해 길이(1.2km→1.5km)와 사업비(620억원→968억원)가 크게 늘어난다.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건설 방식이 확정되기까지는 산업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면서 건설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는 마련됐다. 나머지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30%,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하도록 협약했다. 연륙교 건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은 지난해 1월 투자 협약 당시 미래에셋 측에 대한 특혜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미래에셋은 상반기 안에 경도 관광단지 개발 마스터 플랜을 확정해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경도가 다도해 해양관광 거점이자 아시아 최고 수준 리조트 탄생을 목표로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간담회

광주시는 5일 오후 박병규 경제부시장 주재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협의회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금호타이어 사태로 자금난에 허덕였던 이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금호타이어가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호타이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품 생

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모 (주)유진종합기계 대표이사는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해의 매각에 적극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금호타이어 설비 투자 등을 통한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

대표들은 광주시에 금호타이어가 미지급된 인건비, 자재비 등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 부시장은 "광주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중국 더블스타로 자본유지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경영정상화 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5·18행불자 찾기

### 다음달까지 혈액 채취 신청

광주시는 5·18행방불명자(이하 '5·18행불자') 가족을 찾기 위해 5일부터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혈액 채취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5·18행불자 241명 중 124가족(299명)의 혈액을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유가족 60여 명의 DNA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혈액 채취를 추가로 진행한다. 혈액 채취 대상은 5·18행불자의 부모, 자녀, 형제다. 혈액 채취는 5월 말까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5·18행불자 가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불자 유가족 혈액은 향후 암매장 발굴 등 유골 발견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그동안 5·18행불자를 찾기 위해 암매장 제보를 64건 받아 9곳을 암매장지로 추정하고 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받아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추가 혈액 채취를 통해 행불자 유가족 추가 확인 등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혈액 채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5·18진실규명지원팀(613-5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만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